

크리스천 가정과 야기

☉ 문익수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의 여가실태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이상은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부족한 여가시간을 TV시청이나 낮잠 등과 같은 '휴식활동'으로 보내는 사람이 1위(36.2%)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쇼핑 및 외식, 인터넷 검색 및 채팅 등과 같은 '취미·오락'활동이 25.4%를 차지하였으며, 종교활동 및 사회봉사 등과 같은 '사회 및 기타활동', 스포츠 참여활동이 각각 8.4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희망하는 레저활동으로 '관광활동'이 36.2%, '스포츠활동'이 24.9%, '취미·오락·휴식·기타 활동'이 22.6%, '문화예술활동'이 16.4%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과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식과 쇼핑 및 오락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만 보며 달리는 현대사회의 모습에서 이러한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일(work)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지지 그 시간을 놀이로 즐기지 못하고 다음 일을 위한 준비단계로만 여깁니다. 이리다 보니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고 각자 개인을 위한 레저활동(캠, 오락, 쇼핑, 인터넷 검색 등)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중한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경품권 스티커를 구입한 후, 어쩌면 당첨의 기쁨이 나에게 올 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를 위한 문구를 보는 순간 '그럼 그렇지'라고 말하며 아쉬워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상황이 종종 벌어지지요. 흔히, 아내와 자녀들은 아버지가 시간이 나길 고대하며 기다리다 막상 그 때가 왔을 때 가정의 한바닥 다름에라는 말을 듣고 실망하곤 합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창 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쉬라고 권면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마 11:28). 유진 피터슨이 말한 바와 같이 안식의 일차적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할까? 혹은 하지 말아야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완성하시고 쉬시고 복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을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건강한 삶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거룩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기성세대들은 갑자기 주어진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세대들은 일보다 여가를 우선시하여 오히려 여가에 중독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는 현상이라면가 주말이면 산으로 들로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도료가 꼭 막히는 현상 등이 이러한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과연 그리스도 가정의 여가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적 관점

아고모서 1:17에 따르면 “오랫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 오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비와 같이 여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선물 중의 하나입니다. 제임스 팩커 (James Packer)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여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가는 하나님의 선물로써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휴식, 기분전환, 즐거움뿐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제공한다. 여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존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주고, 인격적 관계를 형성시켜 주며 가족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세상과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여가는 감사, 자기표현, 자기 성취, 창의력, 개인의 성장 및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제공하여 준다.”

여가는 영적, 신체적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고(막6:31), 친교를 증진 시키며(시 133:1), 성도와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을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고(고후 5:18), 참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신성한 기쁨과 즐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줍니다(진 8:15).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여가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가정의 성장에 필수적인 친밀한 정서와 인격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데 여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의 여가활동

크리스천 가정은 시간이 날 때 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예배하듯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은 로마서 12장 1~2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 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 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즐기는 삶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과 예배로 하나님과 대화하듯 가족 간에도 즐겁고 의미있는 여가활동을 통해 가족 간에 유대감과 정서적 교감을 다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밖에 나가 즐길 여유가 없다면, 집에 머 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눠 보세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여가를 즐기기를 원하는지 아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가정에서의 여가의 시작입니다. 여가를 통해 크리스천 가정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즐기는 모든 여가활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크리스천 가정은 세상의 문화와는 구별된 여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가활동이 있지만 크리스천 가정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여가를 선택 할까요?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십시오.

크리스천 가정을 위한 여가 체크리스트		
여러분이 하는 활동은	예	아니오
1. 의심스러운 것이 있나요?		
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요?		
3. 상해를 가져오지 않을 만큼 안전한가요?		
4. 기도를 통해 시작했나요?		
5. 가족에게 예수님의 편지를 얻게 했나요?		
6. 여가활동을 즐기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괜찮나요?		
7. 나에게는 좋으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선택한 여가활동은 위의 체크리스트에서 몇 개가 ‘예’로 나왔나요. ‘아니오’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가족과 대화를 통해 다시 결정해 보십시오.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여가에 대한 창의적 특권과 책임을 다하려한다면, 하나님과 사람과 아름다운과 고상한 모든 것에 가장 가까워지는 여가활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하는라 최선의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것을 추구하는라 좋은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 가정에서 지혜롭게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 기도(예배)에 대한 헌신 그리고 가정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을 삼기지 못하고 종교적 활동에만 몰두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흥미 또는 취미와 가족 사이에 적절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취미나 흥미에만 맞춰 여가를 즐기려 한다면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즐거움이 아닌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여가와 일에 있어서 조화로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할 때에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여가를 위해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되지만, 일을 위해 여가를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함께하듯, 가족들이 함께 여가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기쁨을 얻고 진정한 동역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 모인 장소가 바로 여가를 즐기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문인수 고려대학교에서 체육학을 전공하고, 오래근대학교대학원에서 체육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기독교 학문연구에 상담이사 및 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행정안전부 자선기탁활동지원회 위원장과 서울특별시 자선기탁운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사랑의 교회 시흥매일센터에서 스포츠로 섬기고 있다.